

# JTS

**VOL. 122**  
2016.1112

A group of approximately 15 children of various ages are lined up on a grassy area. They are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children are dressed in casual clothing, including t-shirts, dresses, and a hat. The background is a lush green lawn. In the foreground, a wooden pallet is partially visible.

## Philippine JTS

필리핀 바길랑잇 학교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 마감을 기념해서 간단한 행사를 열고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줬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잡고 단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 Contents

### 해외소식

- 02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건물은 완성됐지만, 학교는 완성되지 않았다. - 송치현  
필리핀 활동 소식
- 11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아이를 가졌어요. - 백은하  
인도 활동 소식
- 18 **긴급구호(네팔)**  
네팔 준공식

### 국내소식

- 2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JTS안산다문화센터 가을나들이  
국내 활동 소식
- 27 **후원인의 소리**
- 28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기부소식  
기부금영수증 안내

# 건물은 완성됐지만, 학교는 완성되지 않았다

JTS의 두 번째 장애인 학교 · 수밀라오 특수학교 이야기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 주 수밀라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특수학교와 기숙사 건축 사업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우연히 공사현장을 방문한 부키드논 주 교육감 토레스 씨는 “이번 장애인 특수학교는 필리핀에서 아주 특별한 시설”이라며 감탄했다. 이번 학교는 JTS가 필리핀에 지은 두 번째 장애인 특수학교다. JTS와 장애인 특수학교의 첫 번째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무리되어가는 학교 건물 모습

### 첫 장애인 학교가 맺어준 인연

13년 전, JTS는 민다나오 섬 부키드논 주 팔라각 군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는 이곳에서 방문단의 시선이 멈춘 곳은 한 교실이었다. 그 교실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한 명의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동한 방문단은 이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JTS는 이례적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게 되었다.

작년 8월, JTS는 10년 만에 팔라각 특수학교를 다시 한 번 찾았다. 학교와 기숙사는 어느새 많이 낡아 있어 보수 작업을 하기로 하고, 기숙사에 아이들을 위해 침대 등 가구도 새로 마련해주기로 했다. JTS에 고맙다며 감사를 표한 팔라각 군 교육담당관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수밀라오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 한 사람은 팔라각 특수학교를 보수 할 당시 교육담당관이었던 로지타씨 였다. 수밀라오에 교육담당관으로 왔다면 인사를 한 그는 이곳에도 많은 장애아동이 있다고 했다.

사업 대상지로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 수밀라오 군 전체의 장애아동 84명 중 단 4명만이 정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닐 뿐, 정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가난으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하면 실제 장애아동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밀라오 군의 장애아동

### 건축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

수밀라오 군에 장애인 특수학교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 이후에 학교와 기숙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해야 했다. 작년에 팔라각 특수학교를 보수하면서 알게 된 학교 운영 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전교생 35명 중 기숙사생이 십여 명인데, 군청과 외부 재단에서 받던 식비 지원이 끊겨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숙사는 관리인도 없었다.

교육청이나 군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평일에는 선생님 한 명이 기숙사에 머물면서 관리인 역할을 하고, 주말에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학부모들이 기숙사 식비와 주말에 집에 다녀올 교통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 보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석률도 점점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팔라각 군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사업은 건물보다 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합의하다

학교 건축과 운영을 위한 수밀라오 군 관계자들과의 첫 번째 회의.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을 요청한 수밀라오 군 교육담당관 로지타씨를 비롯하여 군 의회 교육위원장, 수밀라오 군 소속 면장 대표, 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JTS는 JTS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장애인 학교를 건축할 용의는 있으나, 수밀리오 지역 관계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건축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를 짓는 첫 단계는 JTS가 시작할 수 있지만, 운영은 수밀라오 지역 사람들이 온전하게 책임져야만 한다. 각자가 힘을 모아 함께 운영하는 학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들어가야 추후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교 운영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명확해지자 수밀라오 지역 관계자들은 장애인 특수학교의 건축과 운영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음 회의에서 제시했다. 부키드논주 교육청은 지속해서 정규교사 2명을 파견하고 그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군청은 임시교사 2명의 급여를 지원하고 건축 현장에 매주 수석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기술적 조언과 감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밀라오 교육담당관은 기숙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안전을 책임질 관리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른 학교들은 지역 정부의 공용차량을 특수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데 사용하도록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자원봉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숙사생을 위한 식료품과 식사준비, 건물 청소 등을 하기로 했다.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합의서 서명만이 남은 5월, 필리핀은 대통령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다시 뽑는 선거를 했다. 수밀라오에서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었다. 군청과 합의를 본 사항들이 백지화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담당관은 새로 당선된 군수를 찾아가 장애인 학교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을 하였고, 다행히도 군수는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새로 당선된 군수가 정식으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표 모임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교 운영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 시작된 공사, 고마운 도움들

새 군수와 구두 합의가 5월에 이뤄지고 6월부터 학교공사가 시작되었다. 교실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교실 1칸과 수업을 하는 작은 교실 3칸으로 하고, 모든 교실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숙사는 8인 기준 침실 4칸과 거실, 부엌, 식당까지 갖춘 쾌적한 시설로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이 사용할 침대와 식탁 등 각종 가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사 진행 중인 기숙사 건물 모습

수밀라오 특수학교 건축에는 JTS와 기존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함께 했다. 이번 공사를 책임진 건축가 로리코 씨는 작년 딸라각 군 장애인 학교 보수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로리코 씨는 학교 건축을 진행하면서 교실을 사용할 아이들과 교사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바라보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건축 계획에 관해 설명하는 건축업자 로리코씨

또한 올해 새로 당선된 부키드논 주 부주지사는, 마놀로폴티치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JTS와 함께 학교건축 사업을 한 인연으로 이번 공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공사 부지가 기울어져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해 많은 흙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수밀라오 군청은 흙을 운반할 트럭을 1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키드논 주 부주지사는 다른 지역에서 트럭을 수소문해 주었고, 덕분에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 건물은 완성됐지만, 학교는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의 협조로 공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사 시작 전에 체결한 지역 정부 등 관계자들의 합의 내용이 지켜져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청, 군청, 교육담당관, 학부모 단체가 약속한 내용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학교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어렵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이다. 지역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장애아동들을 직접 대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제 역할을 한다면, 학교는 어떻게든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아동들의 마지막 보호처인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학부모에게도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고 있는 수밀라오 군 특수학교가 잘 운영되어, 수밀라오의 장애아동들이 교실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의 교사들



**마킨다나오 픽켈레간 지역 무슬림 초등학교**

2016년 8월 16일 첫 삽을 뜬 픽켈레간 무슬림 초등학교는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건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오후만 되면 거센 비가 내릴 때가 많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다행히 지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공사가 마무리되면 먼 곳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다물록 공사**

필리핀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푸드 포 워크(노동에 대한 대가로 쌀을 지급하는 것) 예산 부족으로 2016년 4월 이후로 중지되었던 아폴란, 타푸난 교사 숙소 건축과 아폴란, 타푸난, 인라보의 학교 보수와 화장실 건축 사업이, 다물록에 새 군수가 오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10월 말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3곳에서는 마을 목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라원 뉴스**

알라원 원주민 학교의 대기발령교사였던 넵 선생님이 10월부터 정규교사가 되었고, 학교는 실리폰 초등학교의 분교로 드디어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알라원의 주 소득원은 커피인데요, 커피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의견은 커피콩을 말린 후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논의 결과 실리폰의 목수에게 4개의 밀링머신(커피콩 껍질 벗기는 기계) 제작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송코 교육관 새단장**

송코는 딸란딕 부족 마을로 따굴람봉 교육관이 있습니다. 딸란딕 원주민들이 공동 노동으로 교육관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감독하는 목수의 지휘 아래 매주 일요일 마다 한 마을씩 와서 한 가지씩 완성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한 팀이 와서 시멘트로 외벽 미장을 곁게 했고, 10월 말에는 다른 팀이 와서 황토로 작업을 하고, 지금은 남은 지붕을 고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보수가 끝난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의 행복한 시간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학용품 지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JTS가 지은 48개 학교 중에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 유아원, 마을 형편이 좋아져 더는 지원이 필요 없는 곳을 제외하고 약 30여 곳의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식으로 개교한 알라원, 가가후만, 키한아이, 콘솔라시온 학교에는 교복도 2벌씩 지원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열게 된 교사 연수

선생님들로부터 교사 연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약 5년 만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물록 군 소재 12개 JTS 학교의 교장과 대표 교사, 다물록 교육청 슈퍼바이저, JTS 일일 자원봉사자인 다물록 전 군수님과 함께 1차 회의를 했고, 2017년 1월 20일 부터 22일 까지, JTS센터에서 교사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받는 임산부들

# 아이를 가졌어요

## 등게스와리 임산부 지원 사업

인도JTS는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저체중아를 줄이기 위해 등게스와리 마을 임산부들에게 4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타민과 영양식,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녀들을 만난다.

**글쓴이** 인도JTS·백은하 활동가

임산부 지원 사업은  
2015년 수자타아카데미와  
접하고 있는 2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개 마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한 산모의 모습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우기의 축축한 더위가 물러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6년 모자보건 사업도 마무리가 되어간다. 인도에 와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지바가 병원 업무를 시작했고, 이곳 주민들을 만나며 인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곳 등게스와리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다르다. 사람을 차별하는 카스트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이곳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시체를 버리던 곳, 버려진 땅이라는 뜻의 '등게스와리'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제일 척박한 땅이 계급에 밀려난 불가촉천민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영어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 손에 휴대폰을 든 사람이 보이고, 마을에 조그마한 전등 불빛도 반짝이지만,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맨발로 흙바닥을 거침없이 걸어 다니고,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고, 바닥의 흙으로 설거지하는 그들의 모습은, 2600년 전 과거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의 삶은 당연히 더 열악하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병에도 취약하며,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고, 늙은 사람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지바카 병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모자보건 사업도 그 사업 중 하나이다.

영양이 충분한 먹을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산모의 건강이 문제 되고 그런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체중아 비율도 높고 사망률도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지원 사업은 2015년 수자타아카데미와 접하고 있는 2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6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개 마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개 마을, 10명의 임산부로 시작한 사업 대상자는 올해 100여 명이 되었고, 내년에는 2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임산부에게는 시기별로 네 차례에 걸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영양제와 영양식, 출산용 위생용품을 지급한다.



지원 물품준비를 마치고 '줄서세요'외침

JTS의 임산부 지원 사업 초기에는 임산부 대상 교육과 마을별 담당 리더(마을 이장)들의 출선수범이 한몫했고, 지금은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산모들의 입소문으로 임산부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등록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임산부 지원 날짜를 정해 마을 리더들에게 미리 지원 날짜를 알리고 찾아간다. 나는 서류를 통해 먼저 그녀들을 만나고, 그 날 처음 실제로 그녀들과 만나게 된다. 서류에는 임신 3개월이라고 적힌 임산부가 1차 지원 물품을 받는데 그녀의 배는 이미 만삭이다. 임신 8개월이라고 적힌 임산부가 3차 지원 물품을 받는데 아직도 배는 평평하다. 이제 임신 7개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벌써 아기를 낳아서 안고 찾아온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자 등록 상황을 보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담당자가 몇개월이에요? 묻고있음



담당자'안주 씨와 의논하고 있음

담당자인 대학생 안주 씨가 임산부 지원 대상자 등록을 받으며 임산부에게 “몇 살이에요? 임신 몇 개월 짜인가요?”하고 묻는다. 글을 모르고 숫자에 대한 개념도 적은 그녀들이 수줍어하는 얼굴로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대답하면, 이런 상황에 익숙한 안주 씨는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는 22살이라고 적기도 하고, 35살이라고 적기도 한다. 그 상황에서 같은

인도 사람이니 나이는 대충 짐작하는데, 안주 씨도 임신 개월 수를 눈대중으로 짐작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이를 모르지? 임신한 지 몇 개월인지 왜 모르지?’ 하며 의아해했지만,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모르고, 가임기와 생리 주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한국에서는 약국에만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임신판정 시약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녀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상황이 이해가 되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져 왔다. 내가 누리며 살았던 것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었고, 취약한 지식과 환경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과할 정도로 누리고 살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JTS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더 배려하며,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 신생아가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서 수자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안주 씨처럼 베푸는 자리에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병원을 방문하는 그녀들을 만난다.



임산부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스태프 안주 씨의 모습



**유치원생들, 수자타아카데미로 소풍**

동게스와리에는 돌산을 중심으로 14개의 수자타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학교에 진학할 유치원 7세 반 아이들 250명이 수자타아카데미로 소풍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지금까지 배운 동요와 동화를 동영상으로 보며 함께 따라 부르고, 푸짐하게 받은 비스킷과 튀김, 단과자들을 함께 먹고 돌아갔습니다.

**8학년 파트너로 수학여행**

8학년(중3) 학생 15명이 고대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인 '파트나'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트나는 수자타아카데미가 있는 비하르 주의 수도로, 동게스와리에서 버스로 약 3시간 반이 걸립니다. 학생들은 쉽게 가보지 못하는 대도시와 문화 유적, 천문대, 동물원, 과학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초등학생 교복 옷감 지급**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수자타아카데미도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생 241명에게 겨울 교복 옷감을 지급했습니다. 기성복을 사 입기 보다는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일반적인 이곳에서, 아이들은 받은 옷감으로 교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곧 겨울 신발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새 옷감으로 만든 깨끗한 겨울 교복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오게 될 그 날이 기대됩니다.

**동게스와리 이동진료**

지바카 병원은 아파도 먼 길을 걸어서 병원까지 갈 수 없는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중 학교와 가까운 3개 마을을 제외한 12개 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10월 둘째 주에는 안투비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처음 받는 8명을 포함해서 총 64명의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한 달에 두 번, 동게스와리 마을의 0세에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도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접종 쿠폰을 마을 별로 나누어 주었고, 총 34명의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날 신규로 등록된 신생아 11명은 결핵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기존 접종 대상자들은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 동게스와리 극빈자 지원

10월에는 2016년 3차 극빈자 지원을 했습니다. 동게스와리 극빈자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52명을 지원하였으나, 안타깝게도 4명의 사망자가 있어 이번엔 48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동게스와리 주민들의 주식인 쌀과 렌틸콩, 식용유로, 총 30kg 정도 되는 한 달 치 식량입니다. 산 너머 마을 사람들은 수자타아카데미 까나홀 분교에서, 산 앞마을 사람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지원 물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외소식  
네팔  
긴급구호



# 우리 학교가 다시 생겼어요

네팔 지진피해 학교 복구공사 준공식



2015년 4월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대지진 직후, JTS는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지진으로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기로 하고, 네팔 자낙푸르 구 라메츠하프 현의 두 산골마을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것으로 시작했던 굽타스와리 중학교와 뽀차까냐 초등학교 공사가 어느새 마무리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0월 11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학교 두 곳을 지었기 때문에 준공식도 따로 열렸습니다. 먼저 산 아래 마을에서는 굽타스와리 중학교(Shree Gupteshwori Basic School)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있는 학교라, 교실 6칸과 5칸짜리 2개 동으로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건물 잔해가 흩어져 있었던 운동장은 축대를 쌓아 말끔하게 정비했습니다. 학교 뒤편에는 임시 교실로 사용했던 가건물 한 동이 초라하게 남아 있었는데, 학교 앞에 노랗게 핀 꽃이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공식 행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 교육청 관계자, 경찰서 등에서 대표자들이 나와 축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축사에서 어떻게 JTS가 이곳에서 학교복구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NGO들이 카트만두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JTS는 다른 NGO의 손길이 잘 닿지 않은 곳을 찾던 중, 리마 셸과 씨의 소개로 산골마을의 두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JTS 박지나 대표가 직접 이곳을 방문했는데, 카트만두에서 마을을 찾아 들어가는 데에만 10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쉬이 사업하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그만큼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학교를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배우 신민아씨가 보내온 학용품 선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민아씨는 네팔 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복구사업에 1억원을 쾌척했습니다. 촬영 스케줄 때문에 준공식에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편지와 액자에 인사를 담아 네팔 아이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굽타스와리 중학교에서 한참 동안 산을 올라가면 해발 2,000미터에 위치한 뽀차까냐 초등학교(Shree Panchakanya Basic School)가 나옵니다. 뽀차까냐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이곳에는 교실 6칸 짜리 건물 1동을 지었습니다.

준공식에서 학생들이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신나는 춤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학교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컷팅식도 하고, 학교 건축을 기념하는 기념판 제막식도 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던 주민들에게 오늘은 새 희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범륜스님은 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결석하지 말고 나올 것을, 학부모들에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꼭 학교에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 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되길 기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가방과 교복, 신민아씨가 선물하는 학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가방을 메고 무척 신나하며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준공식이 열리는 동안 잠시 소나기가 내렸는데, 소나기가 그치고 새로 지어진 학교를 축복하는 듯, 학교 지붕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지원사업



22

2016 NOV.-DEC

JTS는 지금까지 대부분 해외 구호 사업과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올해는 국내 저소득층,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몇 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복지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한국JTS의 후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JTS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혼 청소년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400가구에 15개월 동안 월 5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장 법륜스님은 협약식에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한다”고 지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내에는 현행법과 제도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결손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특히 겨울이 되면 난방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들도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차상위 계층 결손 가정을 중심으로, 수원시 400가구와 문경시 700가구에 식구 수가 많은 순서대로 겨울철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는 협약식도 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성남시는 2,0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겨울철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글쓴이 JTS안산다문화센터·이미준 활동가

10월 30일, JTS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강원도 오대산으로 다문화 가족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다문화인들에게 이번 나들이는 모처럼 만의 휴식이며, 한국 관광을 할 기회입니다. 나들이 전날까지 흐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나들이 당일엔 전형적인 청명한 가을 날씨로 한국의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문화인들은 대체로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버스 한 대에는 네팔분들로, 나머지 한 대는 태국 및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분들이 나누어 탔습니다. 몇몇 다문화인들은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했는데, 몇 개월 밖에 안된 분들도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이 대부분인 참가자들에 맞춰 동남아 불교의식인 ‘빤 짜실’을 시작으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다문화인들의 나라별 소개를 하는데, 네팔인 한 분이 “우리는 부처님의 나라에서 왔다”

고 이야기하는 데서 네팔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타국에서 만난 자국 사람과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행복한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팔인 한 분은 3년 동안 휴일에도 일하느라 놀러 다닐 시간이 없었는데, 한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월정사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상원사는 월정사의 말사(末寺)로, 월정사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이 있는 곳으로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이 생각나 반가웠습니다. 상원사는 산사를 앞산의 능선이 포근히 안듯이 둘러싸서 고즈넉하고 고요한 것이 월정사하고는 또 다른 멋이 있었습니다. 상원사 일주문으로 가려고 계단을 오르는데,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걸던 다문화인들도, 앞서 걸던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발길을 멈추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한편, 앞다투어 사진도 찍었습니다.



가을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직 처음의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꾸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수록 거리감이 없어졌습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다문화인들을 응원하는 한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을 나들이에 함께해주신 안산다문화센터 월광 원장님과 모든 봉사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입니다. 함께 했던 다문화인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팔 뽀차까냐 초등학교,  
굽타스와리 중학교 준공식**

지난해 네팔 지진으로 무너졌던 뽀차까냐 초등학교(교실 6칸)와 굽타스와리 중학교(교실 10칸)의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10월 11일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배우 신민아 씨가 보내는 필기구를 가득 담은 예쁜 필통을 선물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 두만강 유역 홍수피해 긴급구호**

9월 JTS는 북·중 국경지대인 두만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용정시와 도문시 등 두만강에 인접한 지역은 강물의 범람으로 집안에 물이 들어와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의류 등이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TS는 수재민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조리도구와 대야, 이불, 수건, 내의, 방한복, 라면을 지원했습니다.



**거제도 애광원 가을 나들이**

10월 24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거제도 애광원의 거주인들과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행사에는 애광원 거주인 33명과 원장님 외 교사 11명, JTS 봉사자 46명 등 총 90명이 함께했습니다. 애광원 거주인과 JTS 봉사자가 1대 1로 짝이 되어 선암사와 순천만 연안 습지를 종일 함께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북한 두만강 유역 홍수피해 긴급구호**

미국JTS는 지난 9월, 북·중 국경지대의 두만강 유역의 홍수 피해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피해지역을 직접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강이 범람하여 마을마다 홍수 피해가 극심하여, 가재도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JTS는 북한 두만강 유역의 수재민들에게 쌀, 콩기름 등 식량과 대야, 식기 등 가재도구, 내의와 방한복, 이불 등 겨울을 날 수 있는 의류를 지원했습니다.





**안산다문화센터 다문화 가족 가을 나들이**

JTS안산다문화센터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10월 30일, 오대산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을 나들이에는 네 나라 출신의 다문화가족 53명이 참여했습니다. 몇 년을 한국에 살았던 사람도, 한국의 가을을 처음 맞는 사람도, 모두 청명한 가을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빨갭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고, 넓게 펼쳐진 전나무 숲길을 걷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가을을 경험했습니다.

**두북정토마을 어르신 잔치**

JTS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두북정토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한 나들이와 어르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올가을 어르신 잔치는 11월 9일이었습니다. 두북정토마을에는 160여 명의 어르신이 모였고, 60여 명의 봉사자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점심, 풍물놀이, 노래자랑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박세환, 백은하

**필리핀** 안병주, 송치현, 조혜림, \*김상훈



## 후원인의 소리



큰어머니 이무점님의 극락양생을 발원합니다.  
정숙영

겨울을 앞두고 북한 두만강 유역 홍수 피해를  
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상원

굶주린 아이들이 굶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은영

큰아이가 취업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쁨을 북한 어린이에게 회향하고자 합니다  
고영의

엄마 고 김정실님이 후원합니다.  
김경애

어린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  
김세훈

홍수로 피해입은 북한 동포분들이 옮겨줄 무사히  
나시길 바랍니다.  
김은정

상황이 안 좋지만 북한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특히  
북한 어린이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문진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을 떼어 봅니다.  
박미화

국내 저소득층과 다문화 사업에 쓰여 정토회의  
활동도 알리고 포교도 되었으면 합니다.  
죽사

어머님 칠순에 좋은 날을 의미하고자 적지만 꼭  
필요한 곳에 에 쓰이길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길을 따라 모든 분들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저의 이 작은 행동이 눈이 예쁜 그 사람에게 닿아서  
맑은 웃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서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아버지·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홍진숙

매년 친정어머니 기일 날 후원하는 것으로 어린이  
아이에 돕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최인미

아버님의 병세가 호전되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회향합니다.  
부모님 건강과 백년해로 기원합니다.  
이은경



# 일시후원금 (2016. 9. 01. ~ 2016. 10. 31.)

## 북 한

강경림 강미선 강상원 고영의 광봉준 구인련 권미선 김경미 김경애 김동현 김명호 김미영 김민주 김상설 김세훈 김소영 김수필 김승희 김은정 김은주 김정미 김정원 김종택 명선해양산업(주) 명한석 문성해 문진영 박미화 박완임 박운 박태화 박해광(박순석) 박희달 북한 서광명 서양숙 손수민 신재영 신종섭 안병석 안선영 안유빈 양서운 엄인용 우선영 우정식 우진현 유경희 유성희 유소영 윤영수 윤원정 이미란 이수선 이명자 이영희 이은경 이진일 이창재 이향선 임주현8845 임평환 장남조 장민호 장성우 장순석 전소아 정민호 정윤점 정일애 정현아 조성희 조수미 천수만 최순호 치치 하지만 한그루공방(김홍임) 한성옥 한양희 허대영 허진혁 허함미 현점자 홍성준 홍진숙

## 인 도

강은영 권미선 기덕규 김경란 김광현 김도환 김동현 김명호 김세훈 김소영 김승희 김용덕 김정원 김현정 노경숙 명한석 문승경 민성익 박근 박태환 박해광(박순석) 서양숙 손영수 신종섭 아무개 이영희 이진일 정민호 정우현 조성희 천수만 최인미 하지만 한성옥

## 필리핀

김동현 김명호 김성수 김성철 김소영 김승희 김정원 김현정 명한석 박태환 박해광(박순석) 서광명 서양숙 손영수 신재영 신종섭 아무개 윤원정 이남규 이영희 이진일 장경희 장임정 정민호 조성희 필리핀 한양희

## 전 체

6429 (재)꿈나무가 081-윤상필 081-윤성원 강경림 강대영태국 강미선 강민경 강민숙 강병주 강선영 강성미0615 강성희 강수정 강수필7967 거제무주상 고건희정춘강 고귀영 고세진 공시연양평태지 구봉현대전 구자현 국제구호 권경영 권순향 권영세 권오현 권정아영주태지 권태숙0868 금삼승민승필 금우고2 기정임 김경락 김경만 김경미 김경애 김경진 김경하 김경하(웨디마리트) 김경희 김계[화 김광재 김광호 김규리(장유진) 김규찬 김금옥 김기태 김남희 김대광 김덕주 김도경 김동욱대전보문고3학년11반 김동현 김두태 김말숙 김명애 김명호 김명희 김미애8661 김미영 김미옥 김민국 김민지 김민지 김민호 김보라 김봉생 김삼미 김서윤 김선희 김성수 김성자 김성철 김소영 김수연 김수영 김수운 김수진 김숙자8393 김순실 김승희 김시현 김신형 김여진 김연옥 김영란3867 김영선 김우출영주태지 김운하 김유진 김윤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이 김은정 김음 김인덕 김인숙 김인영 김일수 김재영태지0905 김재욱 김정남 김정숙 김정원 김종걸 김종년0256 김종임1581안산다문화 김중영 김지숙 김지식 김지현 김지형 김지훈 김진연 장유정 김진희 김창민 김창익 김철관 김태균 김현숙 김현숙 김현정 김효원 김희연 나무대비관세음 나연우 나파사원아룬씨리페체 나형수 남경현 남상숙 노나운 노나운 노하진 도성화 류수진 매탄초4-1 명한석 모든사람들 모든영가님앞 무상회사 문경희 문덕권 문서준 문슬기 문지우 문진영 문현숙 문희경 박강희 박계만 박관자 박근택 박기범 박기옥 박동욱영주태지 박동주 박미라 박미혜 박상철 박선영 박설아 박성화 박세익1173 박순양 박시현 박애경 박영기 박옥경 박완임 박옥현 박정민 박정섭 박정자 박종화 박주원 박주하 박준엽1824 박준자 박지은 박진옥 박진현일체영가 박태근 박태환 박해광(박순석) 박현진 박혜령 박화자 반미정 배명섭 배병문 배선희 배성호 백승완 백영아 백진 백진규(동명한의원) 변동해 변영미 부디좋은일에 부사김정숙 북돋기이익수 북한홍수후원 서기영 서광명 서말선 서산법당태지9개 서양숙 서정희 서초이상희0686 서형섭 성명 성윤진 성채현 성현모 세월관광(주) 센터금요행복 손규순 손명선 손연경 손영수 손유정 송이화 송인순 송중수 송지민 신동근 신동현 신영주영가 신재영 신재은 신재은 신종섭 신주현 심을택 아무개 안병석 안병주 안산다문화(유애경)센터 안승연 안자현 안정희양평태지 안혜실 양명선 양산정토법당 양서운 양용자 양진영0622 연양법당 엄영숙논문 엄인용 오경희 오경희 오윤경 오은서 오창욱 오충섭 우진현 운영대영가 울산법당정용한 원따나태지 원철용 유경호 유경희 유동근 유미란 유미화 유선희 유수민 유재덕 유재연 유정훈 유홍식 윤경미 윤병덕 윤석훈 윤선에 윤영수 윤원정 윤정자 윤정환 윤지연 이강준 이광숙 이광주 이귀숙 이규례 이근하장유정 이길림 이나경 이남규 이남은 이동원4486 이미란 이미향 이민지 이봉숙 이상돈 이선주 이성숙 이숙 이숙 이숙이이숙 이양섭 이양자3727 이연주 이영한 이영희 이원섭 이원형 이윤진 이윤진 이윤택 태지 이재관 이정여 이주형 이준희 이지연 이진미 이진일 이찬서 이춘강 이태경 이한수 당진태지 이형원 이희영 이희정 일시후원 임동영 임동기 임동현8845 임양호 임정호 임종택 임화정 장경희 장명진3249 장봉순(안산) 장세영 장애숙 장연주 장영중, 장유정 장원숙 장윤희 장임정 장현원 전체사업 정경아 정경애 정나영 정덕모 정민호 정백기 정병태 정성현부천태지 정소영 정수민 정숙영 정신근 정원은 정은희 정인규 정재훈 정평화 정현옥 정혜선 제환옥 조성희 조아연 조영자 조은우 조정숙 조진규 조진용 좋은일에쓰길 주식회사 세상에서 주식회사나무의마 후원회 축사 축여주는여자 중국에서 지세영 지은아 치지는 천수만 천현준 최경자 최경희 최광수 최근대2650 최기순천도재수원법당 최동녕 최명미 최병규 최재경 최정미 최현미 최현정 최희선 축사해정스님 필리핀 하지만 한동규 한승운 한승희 한신규 한양희 한일홍 한중호 한지석 한중성3954한승운한신규 한혜경 해승호5학년4반 허경미 허위열 허준태 현운용 황상모 황소영 황영애 황재영 황현우 jsj

## 지난후 누락

민성익

## 해외후원금 (2016. 9. 01. ~ 2016. 10. 31.)

A&J Seattle	Hyun Sook Eo	Jung Won Hur	Lee'S Champion	Semi Park
Adele Park	Hyun Soon Kim	Jungmi Kim	Yaekwondo	Seo Min Ho
Aerim Lim	Hyungdae Kim	Jungmin Lee	Academy	Seon Pyoung Kim
Baekgisoon	Hyunji Kim	Jungoui Hwang	Lim Jin Seon	Seong Oh
Barnaby K Smith	le Yeon Park	Ki Sung Kim	Lim Jin Seon	Seonhwa Kim
Bongsan Kim	Im Eun Joo	Kim Dae Gyoung	Linda Davis	Seonunjae Hanok
Bora Kim	Iyoung Choi	Kim Eun Jin?	Luimom	Guesthouse
Changmi Tam	J Y Jun	Kim Eun Kyung	Mansoo Park	Seoyoung Kim
Charles Kim	Jack Gu	Kim Han Young	Maria Kim	Seung Kim
Charles Kim	Jae Won Jung	Kim Hun Jung	Mi Eun Park	Seung Rahn Han
Cho Hyun Soo	Jaegil Byun	Kim Hyoung Kook	Mi Jung	Seung Yong Oh
Cho In Sook	Jaehyun Park	Kim Hyunghi	Mi Kyoung Youn	Seungbi
Choi Joung Hee?	Jaemin Kim	Kim Hyunjung	Mi Kyung Seo	SF 정토회 불대/경전반
Choonhee Chang	Jaemin Lee	Kim Jeoung Ae	Mi Y Kwon	Shim Ji Yeon?
Chul Su Lee	James Kang	Kim Jung In	Michelle Kim	Shin Mi Hye?
Daesub Jang	Jang So Jin	Kim Young Hee	Mikyeong Moon	Si Eun Lee
Dongwoo Lee	Jee Young Kim?	"Kim, Ki"	Mikyong	Song Hyung
Dosoon Song	Jeon Man Sik	Kim-Min-Sea	Min Jeong Jeong	Song Mi Jong
Eun Young Kim	Jeong Dong Hak	Kong Y Kwon	Min Jeong Jeong	Sonin Kwon
Eunji Yoon	Jeong Eun Seok	Korea Taekwondo	Min Kwon Jeong	Soo Jin Young
Eunro Lee	Jeong Im Hyun	Ku Heekyung	Minwoo Kang	Soyeon Chung
Eunyoung Seok	Jeong Seong-	Kwangsoo Choi	Miok Kim	Suk Han
Gahyeong Lee	Sook?	Kwon Hyun Jin?	Miok Son	Sumi Chang
"H&H Worldwide, Inc."	Jeong Youn Shim	Kwon Hye Kyung	Mira Shin	Sumi Jang
Hae Min Byun	Jeong-Ah Lim	Kye-Wan Sung	Mira Yang	Sun Han
Hajeong Lim	Jh A	Kyeyong Jeong	Miran	Sung Ah Shin
Han Hyun Ok	Jihoon Son	Kyung Moon Bae	Mirang Yu	Sung Chang
Han Seung Hee	Jihyung Lee?	Kyung J Kim	Misun Kim	Sung H Won
Hanbin Cho	Jin Ryu	Kyungsook Bang	Moongu Park	Sung Hae Moon
Heekyung Yang	Jin Young Lee	Kyungwon Koh	Moung Shil Yun	Sung Hee Choi
Hoe Son Yun	Jinah Kim	Lauren Carree	Myungseok Song	Sung Mo Yun
Hong	Jinseok Kim?	La중앙일보	Oh Eun Sil	Sungee Park
Hong Jee Won	Jinwoo Jang	Lee Dong Suk	Park Hyun Sook	Sungmin Moon
Hosoon Kim	Jiyoung Kim	Lee Gyeongsin	Park Mi Soon	Sungseo Yoon
Hwang Bo Min	Jiyoung Lee?	Lee Il Joong	Park Seung Ja	Sunok Oh
Hwang Yong Jin	Jjfamilies Llc.	Lee Jin Hee	Peter James	Sunwon Jung
Hyang-Ae Yi	Jong Ho Kim	Lee Joo Hyun	Warner(Kumju Yoon)	Tae Joon Cho
Hyang-Sook	Jong Myun Moon	Lee Jung Won	Ra Ok Kim	Tischa Chong
Hye Kyong Kweon	Jongseok Moon	Lee Kwang Hee	Richard Ha	Union Sqare Cleaner
Hyein Nam	Joo Hyun Im	Lee Mi Gyoung	San Lee	Vana K Hansen
Hyeok Lee	Joon Kim	Lee Myoung Hee	Sang Kil Ong	Wae Suk Kang
Hyoseok Kwon	Jung D Oh	Lee Su Hyang	Sang Shin	Wagnsoon Baek
Hyun Jung	Jung Heiran	Lee Woo Sang	Sangmi Jung	Warren Wonil Kim
	Jung Kyung Hee	Lee Yoanna?	Seiyeol Choi	William Na

Woosik Park	김경태	남리라	밴쿠버정보법당	윤철구	정재연
Yang Dong Ki	김금화	남미란	보광	윤해영	정재원
Yeon J Suk	김길남	노유경	보수	이경분	정지아
Yeonhwa Song	김남길	노진연	상하이정보회원	이동근	정춘자
Yeonsook Ha	김남수	능인선	서민정	이동림	정보회 문경공동체
Yisoon Hwang	김남훈	달라스정보법회회원	서보나	이동영	정보회 인도공동체
Yong Hye Kwon	김대영	대광	서원영	이동우	정효선
Yong S	김대용	대만정보회원	서은선	이명숙	조남숙
Remington	김도영	덕생	서홍석	이명화	조도수
Yongdeog Kim	김도윤	도성희	선주	이새롭	조민주
Yoo Keunjew	김명	류정하	설희지	이성희	조옥식
Yook Sook	김민지	류한동	손승우	이수진	조이스 우
Hall(샌디에고 강연장)	김만철	리차드 김	송민주	이신덕	조희영
Yoon Jae-Soon	김배신	마포법당	송순애	이연순	주윤선
Yoon Hyun-S	김보연	묘당	승자 신	이연우	차영진
Yoon Se Hyeon	김복이	묘덕	시드니정보회회원	이영국	청주정보회
Yoon Suhee	김성민	묘수	시애틀정보회원	이우방	최경숙
Yoonjoo Lee	김성배	무변심	신남수	이원	최경순
You Kyung Won	김세희	무주상	신숙영	이정민	최경요
You Young Mi	김소연	문소정	신예슬	이정인	최기진
Young Kim	김소현	문승렬	심인선	이정호	최낙경
Young Ok Kim	김소희	문희경	안미영	이종우	최만성
Young Park	김수연 (DDB 약국)	문희수	안선영	이주현	최원혁
Young S Suh	김순미	미셀 김	안성진	이주희	최윤희
Youngjoo Yang	김순호	민도연	안젤라 한	이지은	최정연
Youngsu Jung	김애숙	박경배	안종식	이진희	최지혜
Youngsun Lee	김영옥	박경애	알라바마정보회원	이학우	토론토정보회원
Youngsun Park	김영조	박기일	앤디 최	이항림	파리정보법회회원
Youra Kim	김원영	박길림	양수진	이화순	필리핀정보회 회원
Yu Mi Suk	김유진	박동욱	엘에이정보회원	일본정보회원	하노이열린법회
Yu Ra Kim	김윤진	박민주	여광	임건희	하일숙
강미경	김은경	박보라	연수진	임선희	한명수
강서희	김익규	박상희	오선옥	임여원	한승명
강숙진	김재성	박성희	오애경	임정아	한혜진
강현희	김지연	박승용	워싱턴정보회	자광	허재경
강효성	김지원	박양서	월광법사님	장정숙	현순희?
경준 김	김지윤	박연화	유림지구	장철호	홍기윤
고성원	김지은	박용식	유미경	장해숙	홍완희
고옥희(Benevity)	김진환	박준서	유수	장형원	홍은지
곽노진	김철미	박현수	유승목	장혜자	홍희선
곽도순	김태순	박효정	유재숙	전수연	황경옥
구미경	김학노	박희목	윤 박	정계영	황규연
권영미	김향	방곡정보회	윤광미	정금도	황보영
권해원	김현규	백설애	윤상필	정민휘	황연정
권해원	김현진	백혜은	윤소연	정수길	희광
김경숙	김혜숙	백혜정	윤소애	정영미	
김경애	김혜진	백흥미	윤영수	정윤미	

# 나눔저금통 현황 (2016. 9. 01. ~ 2016. 10.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 강동

강동법당 79,910

## 강서

강서법당 46,620

## 거제

거제법당 123,100

## 경기광주

경기광주법당 113,710

## 경산

윤광남 12,450 이유희환 16,020

## 경주

강순자 20,980 경주법당 238,970  
김미현 41,390 무명 22,500 박  
선영 31,220 손명숙 19,990 손인  
권 30,000 이연주 17,370 이은서  
100,000 최홍자 29,350

## 고성

고성법당 31,800

## 관악

관악법당 130,210 관악법당 30,000

## 광명

무명 69,070

## 광주

광주법당 207,670 광주법당 572,740

## 구리

남해인 29,080 무명 51,350 신진  
영 48,320 오기욱 27,420 이정연  
50,790

## 구미

구미법당 28,430 구미법당 68,400

## 군산

임연배 19,380

## 금정

금정법당 19,790

## 기창

기창법당 112,940

## 김천

김천법당 43,350

## 김포

김포법당 10,620 김포법당 9,350

## 김해

김해법당 274,000 김해법당 23,060

## 남산

남산법당 16,430

## 내서

내서법당 78,840

## 노원

노원법당 93,910 노원법당 31,170 노  
원법당 56,680 노원법당 81,260 노원  
법당 86,200

## 당진

김연옥 20,200 이한수 32,110

## 대구

김현숙 17,330 나이스마트지산점  
14,320 데레사소비센타지산점 22,720  
무명 25,940 무명3개 63,840 박순옥  
2개 48,670 범물GS마트2개 17,640  
봉불대생 28,680 송덕준 25,020 오  
수민19,110 이차희,이준영 21,280  
임금실 37,410 장보고식자재마트동  
호점 29,120 지명자 23,220 한정

우 18,000 한정우2개 41,440 현인숙  
8,570

## 대연

대연법당 259,540 대연법당 329,100

## 덕산

덕산법당 88,000 덕산법당 115,030  
덕산법당 100,250

## 덕양

덕양법당 92,750 덕양법당 48,020

## 도봉

고민정 29,440 도봉법당 26,480 양  
길동 95,500 양길동 83,300 이응  
기 62,330 지애중 27,270 황연옥  
36,830

## 동대문

동대문법당 75,690

## 동래

구경희 8,080 김경희 22,400 김  
기연 15,680 김행란 35,030 노  
영옥 19,820 무명 40,510 무명  
87,130 무명 20,000 무명 16,720  
박미서 20,130 박미영 12,220 백  
정림 27,080 송수옥 22,200 신혜  
숙 24,900 안경희 23,200 유은  
선 18,940 이경희 34,100 이나  
금 221,350 이상점 48,450 이수  
정 28,160 이수정 24,080 이수  
정 23,860 정지영 23,350 전영  
주 12,340 조연희 27,100 최인  
정 21,350 허일순 33,830 허일순  
16,580 홍상진 32,530

## 동작

동작법당 64,060

**마산**

마산법당 98,470 마산법당 615,650  
마산법당 122,030

**마포**

마포법당 77,360

**목포**

목포법당 18,260

**문경**

고재숙 23,500 우치구 20,210 이민형  
12,650

**밀양**

밀양법당 31,000 밀양법당 74,150 밀  
양법당 27,280

**반여**

반여법당 94,790

**부천**

박강희 40,740 박정숙 27,230 부천법당  
34,450 윤인자 52,000 이시영 34,800  
정규민 28,510 정성현 16,200 정수민  
19,060 정신곤 74,780 황인숙 31,250

**부평**

김성자 11,820 무명 96,030

**사하**

김봉연 29,080 김사문 24,390 김수민  
19,500 김옥순 29,350 김은숙 23,390  
김현자 23,440 김현정 8,830 남명희  
26,320 무명 30,540 박유민 26,700  
박유민 28,460 박유민 169,780 서경진  
20,670 선영주 25,520 시소림 33,400  
시준호 27,140 양은숙 12,790 이유선  
9,780 장희숙 16,070 정윤호, 박종현  
25,770 조재범 23,950 최미라 30,680  
하경수 23,300 하경수 23,300 하경수  
23,640

**상주**

상주법당 31,000 상주법당 31,000

**서면**

서면법당 535,190 서면법당 352,530

**서산**

서산법당 34,800 서산법당 120,020

**서천**

서천법당 237,500

**서초**

서초법당 301,090 서초법당 484,670

**서현**

서현법당 23,334

**세종**

정호재 22,300

**송도**

송도법당 231,800

**송파**

송파법당 124,220 송파법당 92,180

**수원**

무명 14,120 무명 60,590 신은경  
32,790

**수정**

수정법당 41,470 이윤택 34,760

**순천**

순천법당 232,470

**안동**

안동법당 69,720

**안산다문화센터**

강대영태국 21,570 김종임 40,000 나파사  
원어문씨리페치 60,500 선나른다 33,100

**안성**

강윤하 475,440 이대선 22,170 조은  
경 24,190

**안양**

문형규 36,110 오광석 29,580 최도은  
44,610

**양덕**

양덕법당 181,710

**양평**

공시연 23,100 안정희 20,520 이나경  
24,990

**여수**

여수법당 300,000

**영주**

권정아 36,350 김우출 27,920 박동옥  
27,530 정영자 35,600

**영천**

김상교 44,300 김순란 15,700 김희정  
4,000 손영화 19,300 신동일 28,300  
이대균 2,000 황수정 32,160

**영통**

영통법당 106,370 영통법당 69,080  
영통법당 41,910

**울산**

김시형 23,390 김천호 10,690 무명  
5,560 안영희 34,250 오희담 18,970  
울산법당 256,400 울산법당 249,030  
한양스투어 55,600

**원주**

김한숙 38,560 이윤숙 35,230 정서영  
37,150

**음성**

음성법당 22,070 음성법당 26,210

**의정부**

의정부법당 245,870 의정부법당  
186,310

**의창**

의창법당 112,040

**인천**

인천법당 172,190

**장유**

장유법당 96,990

**제주**

제주법당 106,330

**제천**

제천법당 50,710

**진주**

진주법당 614,470

**진해**

진해법당 101,730 진해법당 19,380

**창원**

창원법당 123,900 창원법당 73,440

**처인**

처인법당 38,650

**청주**

청주법당 258,160

**통영**

통영법당 75,600

**파주**

파주법당 30,690 파주법당 31,470

**평택**

평택법당 313,090

**포천**

포천법당 100,960

**하동**

하동법당 148,470

**함안**

함안법당 20,690 함안법당 25,670 함안법당 36,590 함안법당 17,880

**해운대**

해운대법당 461,340 해운대법당 516,640

**홍성**

홍성법당 127,020

**화명**

화명법당 33,310

**화봉**

화봉법당 100,250

**흥덕**

흥덕법당 74,770 흥덕법당 158,390

**기타**

김영란 18,000 김재영 117,870 박혜령 22,430 송춘보건진료소 68,850 원따나 100,000 이등원 11,900 일깨 143차 291,620 정경애 27,890 최현정 37,590 한지석 67,380 해송초5학년4반 54,290

**거리모금 현황**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0월 31일)  
강동 151,900 강릉 50,000 강서 87,700 강화 202,200 거제 486,010

거창 186,520 경기광주 147,300 경산 347,460 경주 669,160 계룡 109,000 관악 210,100 광명 389,370 광주 666,010 구리 855,920 구미 1,063,500 권선 91,100 금천 373,710 기창 240,750 기타 87,690 기흥 217,130 김천 312,200 김포 500,770 김해 1,011,950 남산 166,040 남양주 110,000 내서 188,200 노원 827,030 달성 35,060 당진 373,890 대구 2,478,570 대연 486,080 대전 409,610 덕산 623,370 덕양 392,940 도봉 226,480 동대문 62,350 동래 1,114,260 동작 74,480 마산 665,910 마포 82,400 매탄초 4-1 155,950 목포 296,360 무주불대 214,400 문 633,310 밀양 143,000 부사 169,440 부천 464,670 부평 318,790 분당 488,190 사천 181,740 사하 645,290 상주 223,970 서면 863,340 서초 1,385,000 서현 298,120 성동 126,000 성북 485,260 성서 601,170 세종 146,750 송도 130,020 송파 300,870 송현 566,420 수원 153,900 수정 2,013,180 순천 273,500 시흥 129,810 신서 100,000 안동 321,080 안산센터 172,600 안성 119,190 안양 672,540 양덕 636,200 양산 709,660 양천 232,750 양평 96,600 언양 44,000 영주 243,380 영천 133,100 영통 514,780 옥교 186,420 용인 304,240 울산 703,590 원주 75,000 은평 273,710 의정부 323,100 의창 219,150 인천 136,100 일산 98,800 입재식모금 1,893,540 장유 463,560 전주 345,650 정토 80,000 종로 70,800 중랑 229,200 진주 912,730 진해 176,400 창원 587,950 처인 434,130 천안 926,650 청주 58,370 태전 99,710 파주 295,490 평택 333,570 포천 307,000 함안 335,000 해운대 1,698,220 홍성 235,930 화명 363,300





**수원 녹산유치원 유치원복 기증**

수원 녹산유치원에서 유치원복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유치원 원복이 변경되면서 남은 새옷들을 좋은 곳에 써주기를 바란다면 보내 주셨습니다. 이 옷들은 인도 수자타 유치원 원생들의 활동복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더프라이스 운동화 기증**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에서 총 2,140켤레의 운동화를 JTS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운동화들은 운동화 페인팅 캠페인에서 사람들이 손수 그림을 그려,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의 개성이 묻어있는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는 인도와 필리핀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

**수밀라오 특수학교 기숙사 건축비 기부**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가 JTS가 건축중인 민다나오 섬 수밀라오 군 장애아동 특수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축 사업에 1억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기숙사가 완공되면, 장애와 가난 때문에 등학교가 힘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팔 재건 학교에 신민아 씨 필기구 세트 선물**

배우 신민아 씨가 복구를 마친 네팔 지진피해 학교 학생들에게 필기구 세트 250개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이 필기구 세트는, 10월 11일 네팔 재건 학교 준공식에서 뽀차까나 초등학교와 굽타스와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신민아씨의 영상 편지와 새 학교, 새 교실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미국JTS 두만강 유역 홍수피해 긴급구호 기부관련 안내**

북한 두만강 유역 홍수 피해 주민들의 긴급구호를 위해 전세계에서 미국JTS(JTS America)에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부자 명단에서 빠졌거나 기부 확인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jtsamerica.ngo@gmail.com](mailto:jtsamerica.ngo@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6년 한해 JTS를 통해 사랑을 나누어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제3세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내일의 희망을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17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원자
- [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주의사항] 12월 31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 ▶ 기부금영수증 신청 여부 확인하는 법

- ① JTS 홈페이지(www.jts.or.kr)에 로그인합니다.
- ② [정보수정]을 클릭하여 [기부금영수증신청] 항목에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아니오"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정보수정]을 클릭하고 "예"로 바꿔줍니다.
- ④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주의사항 |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후원계좌에 입금 후 연락을 주지 않으신 분은, 12월 24일까지 전화 주시면 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

☎ (02)587-8995 (운영시간 월~금 10:00 ~ 16:00)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36

2016 NOV-DEC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대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